

싱크대 밑에서 번쩍이는 새까만 두 눈 『구스범스 12. 싱크대 밑의 눈』 출간!

구스범스[®] 시리즈



12 싱크대 밑의 눈 R.L. 스타인 지음 · 정자혜 그림 / 이원경 옮김

* 2015.5.18. 발행 / 140*205 / 무선제책 / 8,500원 / ISBN 978-89-6548-176-8 74840



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어두컴컴한 싱크대 밑, 무언가 살아 있다! 넌 대체 뭐야? 뭐냐 말이야!

** 미국국립교육협회 어린이 선정도서

** 니켈로데온 키즈 초이스 어워드(Nickelodeon Kids' Choice Awards) 3회 연속 수상

전 세계 32개국, 4억 2천만 어린이가 읽은 베스트셀러 시리즈 구스범스. 그 열두 번째 책 『구스범스 12. 싱크대 밑의 눈』이 출간되었다.

구스범스 시리즈는 세계에서 인정받은 어린이 호러 문학의 걸작이다. 또한 이 시리즈는 심리 아동 상담 전문가 권윤정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시켜 자기 안의 용기를 회복시켜 주는 책.’이라는 평을 받았다. ‘호러’라고 해서 잔인한 오락물이 아닐까 염려하는 어른들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건강한 호러 문학이다.

이번에 출간된 『구스범스 12. 싱크대 밑의 눈』은 지난 3월에 출간된 11권에 이어 다시 한 번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는 섬뜩한 공포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귀신, 늑대인간, 미라, 유령 등 호러물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캐릭터에서 벗어나, 주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세미의 모습을 한 괴물을 등장시킨 점이 신선하다. 이로써 독자들은 생활 터전 곳곳에 놓인 지극히 평범한 사물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색다른 경험을 맛보게 될 것이다.

누구나 보았을 익숙한 ‘사물(事物)’은 누구도 상상 못한 낯선 ‘괴물(怪物)’이 되어 어느새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다. 자, 익숙하지만 낯선 공포의 세계로 지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불행을 만들어 내는 수세미 괴물! 그 괴물을 없앨 방법은?

주인공 ‘캣’과 동생 ‘다니엘’은 새로 이사 온 저택 싱크대 밑에서 수세미 하나를 발견한다. 그러나 수세미가 어딘가 수상하다. 고동치는 심장, 번쩍이는 눈까지……. 수세미는 분명 살아 있다!

싱크대 밑 수세미 괴물을 발견한 날부터 캣에게 온갖 끔찍한 사건들이 밀려온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아빠, 책상 서랍에 손이 낀 선생님, 나뭇가지가 부러져 죽을 뻔한 경험까지 캣은 하루도 무사할 날이 없다.

단서 #1

그를 가진 사람에게는 끝없이 불행이 찾아온다.

수세미의 모습을 한 괴물, 그물은 다른 괴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이 나 있기는커녕 흔하디흔한 손과 발 하나 없다. 그러나 그물은 세상 어떤 괴물보다도 무시무시하고 끔찍하다. 그물은 자신을 주운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악랄한 괴물이기 때문이다.

12권에서는 괴물이 직접 주인공을 공격하는 잔혹한 장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독특한 설정만으로 읽는 독자들의 손에 줄곧 땀을 쥐게 한다. 그물을 주운 뒤로 안전할 것 같았던 모든 공간

이 삼시간에 공포의 무대로 탈바꿈한다. 교실과 운동장, 집 안 구석구석까지…… 사방에 온통 적신호가 켜진다!

단서 #2

육체적 힘이나 그 어떤 물리적 수단으로도 그를 죽일 수는 없다.

캣은 모든 불행이 그물이 벌인 짓이란 걸 깨닫고, 그를 없애기 위한 갖은 방법을 모색한다. 무거운 물건으로 내리찍어도 보고, 벽에 던지기도 하며, 자전거 바퀴로 짓이겨 보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그는 죽지 않는다.

그물에 대한 단서가 적힌 유일한 책인 『괴물 대백과』에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그를 없앨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주인공 캣과 머리를 맞대고 그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괴물과 맞서 싸우겠다는 용기와 도전 의식만으로는 그의 끔찍한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고정 관념을 깨는 번뜩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치 추리 소설을 읽는 것과도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구스범스 12권, 독자들과의 두뇌 싸움을 기다리고 있다.

단서 #3

그물을 남에게 주는 사람은 하루가 가기 전에 죽는다.

불행을 만들어 내는 그물은 남에게 선뜻 내어 줄 수도 없다. 그물을 남에게 주는 사람은 하루 안에 죽기 때문이다.

물건을 남에게 건네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저주를 피하는 공포 이야기는 「링」, 「착신아리」 등의 영화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12권에서는 저주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이에게 물건을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을 철저히 봉쇄한다. 이로써 주인공이 겪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독자들에게까지 전해진다.

과연 캣은 그를 없애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의 끝에는 꼭 조인 숨통을 단숨에 풀어 주는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 [시리즈 소개] 구스범스 시리즈

전 세계 32개국, 4억 2천만 어린이가 읽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구스범스 01. 목각 인형의 웃음소리 소윤경 그림 · 노은정 옮김

결결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 뚫어질 듯 쳐다보는 눈빛, 방 안을 돌아다니는 시커먼 그림자. 과연 인형의 정체는?

구스범스 02. 가면의 복수 오윤화 그림 · 고정아 옮김

친구들로부터 늘 겁쟁이라고 놀림 받는 칼리. 헬러윈 날 끔찍하고 무서운 가면을 쓰고 친구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는데…….

구스범스 03. 빈집의 숨바꼭질 조원희 그림 · 노은정 옮김

이만다는 자꾸만 집 안에서 어린아이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를 듣는다. 누군가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걸까?

구스범스 04. 여름 캠프의 악몽 조승연 그림 · 고정아 옮김

여름 방학을 맞은 빌리는 캠프장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다. 무성한 숲 한가운데 캠프장.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구스범스 05. 악령을 부르는 머리 허구 그림 · 고정아 옮김

과학자 베라 이모가 보낸 괴기스러운 머리와 정글로 오르는 초대장.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악령을 부르는 머리가 빛나기 시작한다.

구스범스 06. 미래의 저주 홍정선 그림 · 노은정 옮김

신날 줄만 알았던 피라미드 탐험. 하지만 삼시간에 공포의 탐험으로 바뀌고 만다.

구스범스 07. 늑대인간의 울음소리 허구 그림 · 고정아 옮김

하나씩 늘어나는 동물의 시체, 갑자기 나타난 늑대를 닮은 개, 그리고 짐승을 닮은 숲 속 남자. 과연 늑대인간은 누굴까?

구스범스 08. 저주 받은 학예회 나오미양 그림 · 노은정 옮김

70년 전 주인공이 사라져 버린 연극. 그 저주 받은 공연이 다시 시작된다.

구스범스 09. 악마의 통조림 이영림 그림 · 이원경 옮김

장난감 가게에서 발견한 통조림. 그 속에 든 것이 내 방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하는데…….

구스범스 10. 눈사람을 조심해 이경국 그림 · 이원경 옮김

눈 덮인 산에 절대 올라가선 안 된다는 사람들. 도대체 뭐가 있기에…….

구스범스 11. 찰칵! 금지된 카메라 감상인 그림 · 이원경 옮김

낡은 저택 지하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그레그. 이 카메라에 무슨 저주가 걸려 있는 걸까?

구스범스 12. 싱크대 밑의 눈 정지혜 그림 · 이원경 옮김

어두컴컴한 싱크대 밑, 무언가 살아 있다! 새까만 두 눈, 고동치는 심장, 소름끼치는 웃음소리……. 놈은 대체 뭘까?

* 구스범스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작가 소개

지은이 R. L. 스타인

“제 직업은 어린이에게 오싹함을 선물하는 것이죠!”

전 세계 아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어린이책 작가. 밖에 나가 노는 걸 싫어했던 스타인은 9살 무렵 타자기를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유머책을 써 냈다. 어른이 된 뒤 어린이를 위한 유머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던 스타인은, 공포소설 「공포의 거리」시리즈를 쓰면서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구스범스」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 32개국에 널리 알려진 스타 작가가 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돼 3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 포터」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꼽힌다.

www.rlstine.com

그린이 정지혜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에서 만화 예술을 공부했다. 그림책을 만들면서 그림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린 책으로는 『나는야, 늙은 5학년』, 『어린이집 바깥 놀이』, 『골목에서 소리가 난다』, 『연보랏빛 양산이 날아오를 때』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다 내 거야!』가 있다.

옮긴이 이원경

경희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말 안 하기 게임』, 『쌍둥이 바꿔치기 대작전』, 『황금 열쇠의 비밀』, 『행복한 목수 비버 아저씨』 등이 있다.